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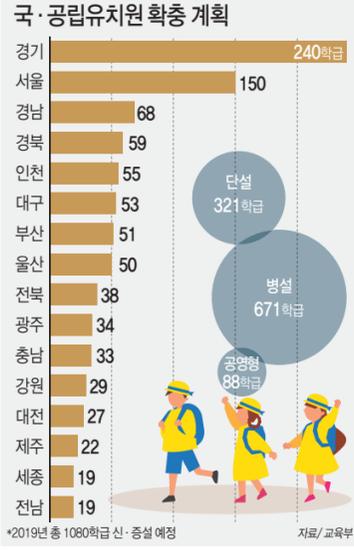
“내년 국공립 1080학급 확충… 원아 2만명 추가 수용”

교육부 유치원 신·증설 개선방안

3월 692학급·9월 388학급 개원 국공립 취원 낮은 지역 우선 신설 통학버스 늘리고 돌봄서비스 개선

유치원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학부모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내년 국·공립유치원 1080 학급을 신·증설해 유치원생 2만여 명을 추가로 받을 계획이지만 2개월여 남은 내년 유치원 입학 앞둔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극도로 커지고 있다. 특히 폐원이나 모집중지를 검토하는 사립유치원이 94곳으로 늘었고 이들 유치원 중 상당수가 내년 1~2월 폐원될 수 있어 유치원 입학 대란이 우려된다. 사립유치원 공공성 확대를 위한 ‘유치원 3법’에 대한 여야 입장차가 커 연내 국회 통과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폐원·모집중지 검토 유치원 94곳 폐원이나 모집중지를 검토하는 유치원



은 지난 3일 기준 전국 94곳으로 늘어 일주일 전보다 9곳이나 증가, 비리유치원 명단 발표 후 매주 증가하고 있다. 서울은 27곳, 경기도는 14곳 등으로 일주일만에

각각 4곳과 2곳이 증가했다. 교육부가 유치원 폐원시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입의 폐업을 막기위한 조치를 취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사립유치원들의 폐원 수요는 큰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모집중지나 폐원을 검토하는 사립유치원 대다수가 현재 폐원을 위한 학부모협의를 진행 중이어서, 내년 1~2월까지 폐원 유치원 수는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유치원 입학대란이 우려된다. 현재 폐원을 검토하는 유치원의 원아 모집 일정은 대부분 정해지지 않은 상태.

◆국·공립유치원 1080곳 추가

이렇게 유치원 입학 대란이 우려되자 교육부는 우선 내년 3월과 9월에 각각 692개, 388개 등 총 1080 학급의 국·공립유치원을 신·증설해 사립유치원 폐원 사태에 대응하기로 했다. 지난 10월 국·공립유치원 확대계획보다 80학급 늘었고 속도도 내기로 했다. 확대되는 유치원은 학급당 원아수 20명으로 계산하면 2만여 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내년 3월 신설되는 유치원 입학생은 이달 말까지 등록 일정이 진행되고, 일부는 내년 1~2월 중 현장모집으로 선발한다. 내년 9월 개원 유치원 원생 모집은 7~8월 현장모집으로 뽑을 예정이다. 지역별 추가되는 유치원은 경기도가 240학급으로 가장 많고, 서울 150학급, 경남 68학급, 인천 54학급, 부산 51학급 등 국·공립 취원율이 낮은 지역부터 우선 신설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적법한 폐원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편법 폐원을 시도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회계감사도 벌이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3월부터 맞벌이나 저소득, 한부모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오후 5시까지 방과후 돌봄을 보장하고, 시도여건에 따라 내년 여름방학부터 방학중 돌봄도 운영하는 등 국·공립유치원 서비스를 개선하기로 했다.

◆유치원 3법 절충안 내놓을까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이른바 유치원 3법에는 여야가 회계 방식과 누리과정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여부 등에서 한

치의 양보가 없는 가운데 지난 3일에 이어 6일 추가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가 불발돼 9일까지 정기국회 회기내 법안 통과에 빨간불이 켜졌다.

여야는 이날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개정안을 절충한 중재안을 논의했다. 중재안은 국가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지 않는 대신, 국가지원금과 학부모부담금을 통합회계를 통해 관리하고 유용 시 형사처벌을 하지는 내용이다. 하지만 한국당이 유치원의 사유재산권을 인정, 학부모부담금의 일반회계로 이원화를 고집했다. 회의에서는 ‘학부모 부담금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하자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다.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절차가 남아 사실상 이번 정기국회 내 유치원 3법 처리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직장인 10명 중 8명 “연말에 스트레스 UP” 상위권은 소신… 중하위권은 안정 지원

벼룩시장 직장인 947명 설문

직장인 대다수가 평소보다 연말에 스트레스를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성취한 게 없었다는 허무감과 직장 실적 부진, 과도한 연말 모임과 지출 등이 스트레스 원인으로 꼽혔다.

6일 벼룩시장구인구직이 직장인 947명을 대상으로 ‘직장인 연말 스트레스’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3.5%가 ‘연말에는 평소보다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답했다.

성별로는 여성(87.8%)이 남성(78.3%)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했고, 연령별로는 30대(87%)와 40대(86%)가 20대(77.7%), 50대(76.2%), 60대 이상(68.1%)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연말 스트레스의 원인으로는 ‘한 해 동

안 성취한 것이 없다는 것에 대한 허무감’(24.7%), ‘어려운 경제상황과 직장의 실적 악화’(23.3%)가 많았고, 이어 ‘과다한 지출로 인한 금전적 부담감’(14.4%), ‘잡은 술자리와 모임’(12.7%), ‘들뜬 분위기 속에서 상대적인 소외감과 박탈감’(11.4%), ‘새해에는 변화해야 한다는 중압감’(8.2%), ‘실적평가, 승진심사 등 직장에서의 평가 압박감’(5.2%) 등이었다.

연말 스트레스 해소 방법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지낸다’(25.8%), ‘가족, 연인과 많은 시간을 보낸다’(23.9%), ‘맛있는 음식을 찾아 먹는다’(20.1%), ‘여행을 떠난다’(14.1%), ‘평소보다 일에 더 집중하려고 한다’(8.9%), ‘잡은 술자리와 모임을 즐기려고 한다’(7.1%) 등의 의견이 나왔다.

한용수 기자

메트로가 꼭 짚는 대입전략

④ 등급별 지원

인서울, 인문계 363점·자연계 355점 서울대, 경영 406점·의예 410점 예상



오중운 종로학원 하북교육 평가이사

도 전년보다 어렵게 출제돼 1등급 90점 이상 비율이 5.30% (전년도 10.03%), 2등급 80점 이상 누적 비율은 19.64%(전년도 29.68%)로 전년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한 수준이다. 탐구 영역은 사회탐구 영역의 경우 대체로 쉽게 출제돼 생활과윤리, 윤리와사상, 한국지리, 세계지리, 동아시아사, 세계사 등 6과목은 만점을 받아야 1등급을 받을 정도다. 과학탐구는 물리I, II가 평이하게 출제돼 만점을 받아야 1등급을 받고, 생명과학I은 다소 어렵게 출제돼 최고점 표준점수 72점, 1등급 구분 원점수는 44점(표준점수 67점), 생명과학II는 최고점 표준점수 70점, 1등급 구분 원점수는 45(표준점수 66점) 등이다.

2019수능 채점 결과, 국어 영역이 역대급으로 어렵게 출제돼 최고점 표준점수가 150점으로 전년 대비 16점 상승했고, 1등급 구분 원점수는 84점(표준점수 132점), 2등급 구분 원점수는 78점(표준점수 125점) 등으로 전년 대비 원점수 기준으로 10점 이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학 영역은 자연계열 학생들이 주로 응시하는 수학기형의 최고점 표준점수는 133점으로 전년 대비 3점 상승했고, 1등급 구분 원점수가 92점(표준점수 126점), 2등급 원점수 컷 88점(표준점수 123점) 등이었다. 인문계열 학생들이 응시하는 수학 나형은 최고점 표준점수가 139점으로 전년 대비 4점 상승했고, 1등급 구분 원점수가 88점(표준점수 130점), 2등급 원점수 컷 84점(표준점수 127점) 등으로 다소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

절대평가 2년차로 시행되는 영어 영역

제2외국어 및 한문 영역은 아랍어, 베트남어를 제외하면 최고점 표준점수 65점에서 72점, 1등급 구분 원점수는 43점에서 49점 등으로 분포했다. 반면에 아랍어는 최고점 표준점수가 91점, 1등급 구

분 원점수는 40점(표준점수 80점) 등이고, 11점 정도를 받아도 중간 등급인 5등급을 받게 된다.

2019학년도 대학 정시모집에서 주요 대학 학과별 합격 예상선은 국수탐 3개 영역의 합산 표준점수로 서울대 경영대학이 406점, 의예과는 410점, 연세대와 고려대 경영학과 합격선은 각각 403점, 연세대 영어영문학과는 399점, 고려대 영어영문학과 399점 등으로 예상된다. 의대 합격선은 연세대 409점, 고려대 408점 등으로 예상된다. 가톨릭대, 상명대 등 서울 소재 대학 지원선은 인문계가 국수탐 표준점수 363점(백분위 244점, 300점 만점), 자연계는 355점(백분위 232점), 각 영어 2등급 기준이다.

수험생 수준대별로 정시 지원시 상위권 학생은 모집인원의 특성상 가군, 나군에 실질적으로 소신, 적정 대학을 적절하게 배합해 지원하면 좋고, 중위권 이하수험생은 모집군별로 가, 나, 다군에 걸쳐 소신, 적정, 안정 지원을 적절하게 배합해 지원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수능 성적 활용 지표(표준점수, 백분위)와 반영 영역 수, 영역별 반영 비율 정도에 따라 자신의 점수와 가장 잘 부합되는 대학 및 모집단위의 지원도 필요하다.

김정현 광운대 교수 ‘50mg 웨어러블 자외선 센서’ 개발

스마트헬스케어 분야서 활용 전망

국내외 연구진이 인체 자외선에 노출되는 정도를 직접 측정할 수 있는 ‘초소형 웨어러블 자외선 센서’를 개발했다.

광운대는 전자융합공학과 김정현 교수 연구팀이 미국 노스웨스턴대, 일리노이주립대 등과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초소형 웨어러블 자외선 센서를 개발하고 임상 실험을 통해 성능을 증명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초소형 웨어러블 자외선 센서는 피부, 손톱 또는 작은 단추와 같은 곳에 부착해 인체가 자외선에 노출되는 정도를 직접 측정할 수 있어 향후 스마트헬스케어 분야에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자외선 노출 정도는 기상청이 발표하는 자외선 수치를 확인해 가능하는 수준이었다. 연구팀이 개발한 센서는 자외선 노출 시 발생하는 광전류를 근거리 무선 통신(NFC: Near-Field Communication) 기술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읽



김정현 광운대 전자융합공학과 교수가 자외선 노출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초소형 웨어러블 자외선 센서’를 핀셋으로 들어보이고 있다. /광운대

어내는 방식이다. 광전류는 자외선을 받으면 자연 발생하며 연결된 슈퍼커패시터에 즉시 저장된다. 사용자는 본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저장된 전류량을 수시로 확인해 자외선 노출 정도를 알 수 있다.

연구팀이 개발한 센서는 지름 8mm, 두께 약 1mm, 무게는 약 50mg 정도로 매우 작고 얇고 가벼워 피부뿐만 아니라 손톱이나 단추와 같은 작은 곳에 쉽게 부착 가능하다. 연구팀은 선글라스, 귀걸이, 반지, 팔찌, 손톱 위 등에 센서를 부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용수 기자

‘스키장·독서실’ 겨울 인기 알바 구하려면?

알바몬 ‘2019 겨울알바 채용관’

알바몬은 겨울철 인기 아르바이트 채용정보를 선별해 제공하는 ‘2019 겨울 알바 채용관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겨울 알바 채용관 카테고리에는 △커피전문점, △사무직, △독서실·학원, △편의점, △호텔·리조트 총 5개 업·직종으로 구성됐다. 특히 공고 검색 시 지역별, 근무기간별 등 개인 조건에 맞춘 상세 검색이 가능해 구직자들의 검색 편의성을 높였다. 이날 현재 알바몬 겨울 알바 채용관에는 2000여 건 이상의 겨울철 아르바이



트 채용공고가 올라와 있다.

알바몬 관계자는 “구직자들이 겨울철에 많이 찾는 인기 아르바이트 업·직종을 뽑아 채용관 카테고리를 구성했다”고 설명하며 “채용관 내에서는 채용공고 확인은 물론 초보 구직자들에게 도움이 될 다양한 정보 또한 제공한다”고 말했다.

한용수 기자

상명대 ‘청년드림 베스트 프랙티스’서 고용노동부 장관상 수상

상명대학교(총장 백용기)는 지난 5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진행된 ‘2018 청년드림 Best Practice’ 세미나에서 진로지도영역 최고상인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상명대학교는 이날 대학 진로취업지원 우수사례 발표에서 ‘온라인 원스톱 경력개발시스템 구축·확장을 통한 학생맞춤형 온·오프라인 진로지도 활성화 사례’를 발표해 세미나에 참가한 관계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다.

한용수 기자